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별다른 여론의 호응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듯하다. 국정홍보처는 기자회견 등 언론과 사이가 틀어져 그렇다.

사라지는 농촌진흥청

침묵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농민단체들과 관련 학회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반대집회를 해도 언론과 시민들은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다.

350만 농민 무시 처사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가운데 국정홍보처와 농촌진흥청의 폐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을 뿐,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농업진흥청과 농촌살리기를 공명불처럼 되풀이해 왔다. 그들에게는 350만 농민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소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감축 대상 공무원 6천951명 가운데 농업수산 분야의 연구직이 44.4%라고 한다. 이 중에서 농촌진흥청 소속이 30.3%라고 했다.

니 전체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을 농업 분야에서 줄이겠다는 뜻이다. 농촌 포기, 농업 철폐를 이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어디 있겠는가.

인수위의 구성은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소로 만들어 계속 존립시키겠다는 것이지만 곡물과 축산물 증가 개량과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에 맡길 경우 국민 전체의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는 연구비 제공 업체나 기관이 주문하는 연구만 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연구결과만 내놓을 것이 뻔하다.

선진국 '식량안보' 필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농업분야의 연구기관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을 하면 할수록 농업기술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은 농촌진흥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절실한 느낌을 없을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없어진다고 당장 농산물 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농촌진흥청을 없앤다는 것은 일제가 광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농경민족인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기둥을 허물고 주춧돌을 뽑아내는 것과 다름없는 아반적인 파괴행위가 될 것이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6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로스쿨 추가 선정 재논의 미봉책 불과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4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일단 확정하되 로스쿨 본인(9월)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4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일단 확정하되 로스쿨 본인(9월)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로스쿨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다. 무엇보다 스스로 개입했다고 밝힌 윤승용 전 청와대총무수석의 발언은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에 들어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후보수석 몫으로 배정된 언론계 추천인사를 익산출신 인사로 밀어 성사시켰다"고 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인연배정 비율 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수석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로스쿨 선정이 정치적·정략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윤 전 수석은 파문이 확산하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소 부풀려 발표한 점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결과에 대한 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윤 전 수석 발언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 국민 혼선 없도록 과욕 버려야

대통령직 인수위의 선풍적 행보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장담했으나 슬그머니 발을 빼고만 것이다.

탁상행정이 이번만은 아니다. 영어몰입식 교육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백지화해야 했다. 분양가의 25%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반의 반값 아파트'와 신용불량자 구제, 유류세 10% 인하 등도 호지부됐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과 구상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주력하기 바란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자성과 함께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구상단계에 있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지만 사실상 오는 24일 끝난다. 나머지 기간에는 백서 발간 등 인수위 활동 정리작업 등을 하게 된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과 구상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주력하기 바란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NGO 칼럼

김형은



예전 아이들이나 요즘 아이들은 일 년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지는 명절이나 행사를 말하러 하면 대부분 설날이라고 합니다.

달래죽기도 하고 큰엄마가 읽어주는 또 다른 책 맛에 조금씩 재미있어 해 보입니다.

어릴 적 나와 언니는 설날이 가까워오면 집 멀리 나가 노는 것을 자제하고, 분주해지는 어른들 주변을 돌면서 들뜬 기분으로 심부름도 곧잘 하곤 했지요.

옛날 아이들은 반듯한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고도 어른들에 대한 예절과 사람됨을 가정교육과 학교생활을 통해 배우고, 몸으로 익히면서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자라왔지요.

설날에 한 권 동화책을 선물로

구멍을 자극하여 흥분하게 하였고, 구수한 그 냄새의 설날은 마음으로 설을 맞이하였지요.

그러나 요즘처럼 부족한 것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 사는 법새와 그 속에 들어있는 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날 새벽 날이 밝아오면 제 스스로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동네를 돌며 어른식 찾아 세배를 드리고 한 상 가득 맛있는 음식과 덕담을 선물로 받은 따뜻했던 기억이 아직도 옛 추억을 되살려 주곤 합니다.

좋은 어린이 책은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때론 한 권의 좋은 책이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지금의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그러한 옛 추억과는 달리 사춘기를 만나는 기쁨과 어른들에게 따뜻한 세배를 받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게 되어서 말을 합니다. 이번 설날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에 즐겨 보았던 자치기, 윷놀이도 하고 동화책 한 권도 챙겨 가서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기쁨도 누리어주세요.

처음에 조카들은 동화책 선물로 그리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설 연휴동안 책장을 넘기면서 무료함을

공항 검색대 잦은 실랑이 여행객 모두에 피해

며칠전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승객의 실수였지만 여행 가방에 라이터를 넣은 상태로 짐 검색을 받았나 보다.

라이터든 불병든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못하도록 한 지는 꽤 오래된 일이다. 라이터는 폭발물이고 불 역시 액체폭발물의 위험성이 있어 아예 못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자 공항 직원이 상황 설명을 하며 입출금 심사대에 붙어있는 안내 포스터까지 보여주며 경각심을 주자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한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여행객들이 많은 것 같다. 이로 인한 다름으로 검색시간이 길어지고 항공기 출발도 지연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 한사람은 500원짜리 조그만 물병을 들고 들어가다가 역시 검색대에서 반입금지 조치 됐다.

여행전에 탑승절차나 항공기 정보, 매너 등을 미리 챙겨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송양빈·목소리 온금동



코알라의 이유 있는 게으름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동물을 들리자면, '이슬'이라면 배짱을 들지 모르지만 동물은 좀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코알라와 나무늘보 정도를 차지 않을까 싶다.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 1시간에 900m 정도를 이동하기도 하고 물에선 헤엄도 제법 치지만 땅위에서는 단 몇 미터 이동하는 데도 몇 시간을 기록한다.

코알라 역시 하루 종일 이 사진 모양으로 나무동치에 매달려 유칼립투스 잎만 조금씩 뜯어먹으면서 거의 연명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이 게으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천적을 피할 수 있는 나무 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원이 한정된 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유칼립투스 잎은 다른 동물들은 전혀 먹을 수가 없는 독성 식물이다. 하지만 코알라에게는 이 독을 중화시켜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소화기 내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화시키더라도 나뭇잎의 독성분이 남아있어 하루 종일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은 무기력한 생활을 해야 한다.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반백의 패스트푸드 할머니 점원 '신선한 충격'

얼마전 대전에서 사는 동생이 조카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열차를 타고 올라갔다.

패스트푸드점의 점원은 젊은이 일색이다. 대부분 유니폼을 예쁘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이다.

하지만 이날 만난 점원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었다. 예순은 족히 넘었을 것 같은 할머니 점원은 젊은이만큼 짐승이나 목소리가 쾅쾅하진 않았지만 음식을 주문받거나 내주는 데 전혀 굼뜨지 않고 차분했다.

머니다 보니 신뢰감과 푸근함이 함께 느껴졌다.

그 할머니 점원도 다른 할머니들처럼 허리나 다리가 불편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노년의 외로움도 떨쳐버릴 수 있어 보람과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던 패스트푸드점에 할머니·할아버지 점원이 더 늘어난다면 획기적 변화가 될까? 젊어서 잃어버린 대가족의 향수를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보는 패스트푸드점의 할머니 점원이 아직도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있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지금도 그렇지만, 70~80년대 영화에서나 보는 미국의 가정집들은 '그림 속의 집'이었다.

최근 생겨나는 전원주택에서 위안도 받지 못, 한국인들이 동경했던 미국의 집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쉽게 붕괴되고 있다.

그림같은 집



그들의 사례를 보면 서 얻은 교훈이라면 주식이란 부동산이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무리하면 낭패를 본다

뉴스에 등장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인들 역시 집을 사는데 대부분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는다.

쉬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은 담보대출비율이 있지만, 미국은 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5억 원 또는 그 이상도 빌려준다.

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전문가도 그 구조를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 복잡해 부실의 규모를 감히 짐작할 수 없다.

그들의 사례를 보면 서 얻은 교훈이라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무리하면 낭패를 본다

는 것이다. 없는 사람들이 쉽게 돈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이란 걸 깨닫게 한다.

집을 구입당한 뒤 미국인들이 허름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애완견이 버리고 있다는 데, 이제 미국인들에게도 그림 같은 집이 돼 버렸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URL.